

무안군 몽탄·해제·일로 침수피해 사라진다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년 연속 선정 사업비 281억원 확보... 내년부터 저류시설 등 공사

무안군이 민선 6기 들어 지역민의 침수 피해를 막아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부 예산 28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무안군은 "최근 환경부에서 공모한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년

연속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안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명적 증가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한정된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침수피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의 공모사업에 도전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에 무안 해제면과 몽탄면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으로 선정돼 178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일로읍이 선정돼 103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선 6기 들어 총 28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됐다. 무안군은 올해 실시계획용역과 하수도 정비대책수립 등을 거쳐 내년부터 3개 읍·면 상습침수지역(3.25㎢)내에 하수저류시설과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침수피해 없는 무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함평군 자연생태공원내 인도교 준공

대동제 생태수목원 연결

함평군은 "신광면 함평자연생태공원과 대동제 생태수목원을 잇는 인도교(사진)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월교'로 이름붙여진 이 교량은 총 사업비 37억원 투입해 길이 215m, 폭 5.8m 규모로 설치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양서 파충류생태공원과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대동제 생태수목원까지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군 우리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근대 유적지 탐방

영광군은 "최근 지역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근대 역사탐방-목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로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역사 탐방에는 관내 중학생 및 자원봉사자 29명이 참여했으며, 일제 강점기 목포 일본 역사관 및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쓰였던 근대역사관을 비롯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성육기념관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은 이번 목포 탐방에 이어 군산과 광주, 부여, 경주 등을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역사 탐방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영광소방서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영광소방서 흥농119안전센터는 지난 15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공동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함평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28일까지 수강생 60명 모집

함평군은 "오는 28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프로그램은 가족공예, 냅킨아트, 차(茶) 이야기 등 3개 과정이다.

가족공예는 소 통가죽을 이용해 도장지갑 등 소품을 만드는 교육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냅킨아트는 냅킨을 이용해 그림이나 글자로 이루어진 평면작품을 3차원의 입체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공예다. 차(茶) 이야기 프로그램에서는 다도(차 마시는 예절)를 배우고 차 만들기 실습을 한다. 냅킨아트와 차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며, 과정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접수는 군청 총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 함평만에 참꼬막 종패 2t 살포



함평지역 어민들이 지난 15일 손불면 앞바다에서 참꼬막 종패를 살포하고 있다.

3년째 방류... 불법채취 감시도

함평군은 "지난 15일 손불면 월천항 인근 바다에서 생태계 변화로 함평만에 서식하는 패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참꼬막 종패 2000kg을 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함평군은 타 패류에 비해 함평만에 적합한 참꼬막의 종패를 지난 2013년부터 방류하고 있다.

올해에도 양식장 면허지를 중심으로 종패 살포에 나서고 있으며, 살포된 종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어구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법 채취를 감시할 계획이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종패 살포사업이 함평만의 수산자원 증식과 함께 어업인인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내달 1일 개장

플장 조성·캐러밴 10대 배치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 개장한다. 영광군은 전남 3대 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미끄럼틀과 수영장, 썰터 등을 갖춘 플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바다 체험과 체류형 6인 숙박이 가능한 캐러밴 10대를 배치했다. 지난 1925년 개장 후 92년 전통을 지닌 가마미 해수욕장은 300여 그루의 소나무와 느티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영장과 황금빛 낙조 노을이 유명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16일 "연간 최다 30만명이 찾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세 얼굴

"지역 맞춤형 친절한 소방행정 구현"

최완석 무안소방서장



"초대 무안소방서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소방·방호·구조 중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석 무안소방서장은 취임한 최완석(58) 서장은 취임사에서 "신설 소방서인 만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방행정 추진과 완벽한 현장 대응 활동, 신속하고 친절한 소방행정 구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완석 서장은 지난 1987년 소방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전남소방본부 방호팀장과 장비팀장, 행정팀장, 구조구급과장 등을 지냈다.

한편 무안소방서는 오는 24일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 무안소방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했으며, 모두 97명의 소방공무원이 무안지역 3개읍과 6개면을 관할하게 된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숙박 (무인텔/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은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 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010-3605-5000

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 분!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교육비 1200만원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